

한국 양궁 리커브, 남녀 단체전 동반 결승진출



19일 오전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열린 광주 2022양궁월드컵 리커브 단체전 경기에서 남녀 태극궁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경기장을 걸어 나오고 있다. '세계 최강' 한국 양궁은 '그 실력 그대로' 남녀 단체전 모두 결승에 진출했다. 결승전은 22일 오전 광주여대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남녀 대표팀은 각각 이탈리아와 독일을 상대로 금메달을 다툰다. 김제덕·김우진·이우석으로 이뤄진 남자대표팀은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8강에서 방글라데시(5대1)를 꺾고 4강에 진출, 카자흐스탄(5대4·29대26)을 상대로 슛오프 승을 거뒀다. 준결승전에서는 스페인(6대2)을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최미선·안산·이가현이 팀을 이룬 여자 대표팀도 16강에서 폴란드(6대0), 8강에서 터키(5대4 슛오프 27대26), 준결승전에서 인도(6대2)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결승진출을 확정했다.

/김애리 기자



광주FC 허을이 지난달 27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FA컵 3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기뻐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무패 가도’ 광주 독주체제 굳힌다

날카로운 ‘창’ 탄탄한 ‘방패’ 무장...22일 경남FC 원정

프로축구 광주FC가 경남FC 원정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간다.

광주는 오는 22일 오후 4시 진주종합경기장에서 경남과 하나원큐 K리그2 2022 17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의 기세가 멈출 줄 모른다. 광주는 지난 15라운드 안산그리너스와 홈경기에서 허을, 하승운의 득점에 힘입어 2대0 짜릿한 승리를 기록했다. 이날 승리로 선두 자리 수성과 함께 K리그 시도민구단 홈 최다연승(8연승) 타이틀을 이루는 등 세 역사의 순간에도 한 발 다가섰다.

홈 8연승과 FA컵 포함 10경기 무패(9승 1무),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는 광주지만 절대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2위 부천FC가 지난 라운드 패를 기록한 만큼 경남전 승리로 격차를 벌려 선두 자리를 굳힌다는 각오다.

광주는 공수 양면에서 완벽한 밸런스를 구축했다.

올 시즌 1경기를 제외하고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 중인 광주는 엄지성과 헤이스 등 기존 공격 자원 외에도 이은범, 안영규 등 수비라인까지 득점에 성공, 꾸준한 득점력으로 리그 최다 득점

3위(21득점)에 올라왔다.

또 주간 MVP를 수상한 허을과 리그 데뷔골을 기록한 하승운이 지난 라운드 교체 투입 이후 팀을 승리로 이끄는 등 이정호 감독의 용병술까지 어우러져 광주의 승점 적립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수비도 마찬가지다. 광주는 안영규, 김재봉, 김현훈 등 수비라인의 탄탄한 대인방어와 끈끈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2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 현재 리그 최소 실점(10실점) 공동 1위에 오르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번 상대 경남은 리그 득점 선두 티아고(7골)를 중심으로 에르난데스, 윌리안 등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에 힘입어 최근 리그 4경기 무패(3승 1무)로 6위에 올라왔다. 특히 지난 라운드 2위 부천 원정에서 1-0 승리를 기록, 자신감을 끌어올렸다.

광주는 지난 16라운드 휴식을 취하며 체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압박과 드리블로 경남의 수비진을 흔들다는 계획이다.

광주가 경남을 꺾고 무패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희중기자



서산초, 씨름관 개관

씨름 훈련 명소 자리매김

광주서산초등학교가 씨름관을 새로 개관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9일 서산초에서 광주시교육청, 광주씨름협회, 각 육성학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랑이 씨름관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에는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 대학교 1개 등 6개 학교 56명의 씨름 선수들이 모래판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광주씨름은 초·중·고·대학으로 이어지는 연계육성이 탄탄한 종목으로, 각종 대회에서 꾸준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 스포츠 위상을 지켜가고 있다.

최근 열린 제19회 학산 김성열 장사배 전국씨름대회에서 용장급에 출전한 정수혁(서산초 6년)이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다.

광주시체육회는 이번 서산초 씨름관 개관으로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이 완비돼 선수들의 경기력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서산초 씨름관이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타 지역 선수들의 전지훈련지로 도 손색이 없는 씨름 훈련 명소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염주테니스장 새 단장 개·보수로 안전성·편리성 제고

광주시체육회가 염주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10개월간의 개·보수공사를 마치고 새로 문을 열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염주테니스장 개보수를 위해 약 11억 원의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관리동 증축 및 부대시설(펜스 설치, 휴게광장, 기타 부대시설) 등을 보완했다.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설물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살리는 등 시민 편의 제고에 역점을 뒀다.

관리동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비롯해 탈의실(락커룸), 샤워실, 공용화장실, 장비 보관실 등을 설치해 장애인 이용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은 “염주테니스장은 1994년에 준공된 공공체육시설물로서 이번 개·보수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테니스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광주 김선정, 전남 장주일·조경인·박세찬 2관왕

제16회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 광주·전남선수단 연일 낭보

제16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전남선수단이 연일 금메달 낭보를 이어오고 있다.

대회 3일째 광주선수단은 금메달 6개, 은메달 7개, 동메달 7개를 추가했다.

육상에서 김선정(상무중 3)이 여자 200m T13(시각장애) 초·중등부에서 36.98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지난 18일 100m에서 금메달을 딴 김선정은 대회 2관왕을 기록했다.

여자 200m T20(지적장애) 고등부에 출전한 김영주(광주선광학교·고3)와 여자 200m DB(청각장애) 중등부에 출전한 김유은(신용중 1)도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조정에서는 남자 1,000m 타임레이스 지적장애 고등부 경기에서 김병철(광주자연과학고 2)과 공명진(광주자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육상에서 선전을 펼친 전남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제공〉

연과학고 3)이 1, 2위를 기록했다.

여자 1,000m 타임레이스 지적장애 고등부 강수빈(정광고 3)과 김민형(광주여고 3)도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볼링에서 유현서(광주선우학교·고3)가 여자 개인전 청각장애 초·중·고등부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

전남선수단도 주요 메달발인 육상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를 추가하며 순항중이다.

육상(트랙)에서 장주일(덕수학교)이 남자 고등부 800m와 400m 릴레이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조경인(목포인성학교)도 남자 초등부 높이뛰기와 멀리뛰기에서 2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박세찬(소림학교)도 남자 고등부 400m 릴레이와 200m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박희중기자

영암서 CJ슈퍼레이스 2회전 ‘열전’

20-21일 ‘슈퍼6000’ 등 5개 종목 84대 참가

국내 최대 등급 프로 모터스포츠 경기인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2회전이 21일부터 이틀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최상위급이자 아시아 유일 스포카 경주인 ‘슈퍼6000’을 비롯해 양산차 기반의 투어링카 경주인 ‘금고GT’, 고성능 차량인 M4 쿠페로 구성된 ‘BMW M’, 단일 차종이 참가하는 ‘캐딜락 CT4’, 레이싱 전용 차량인 ‘프로토타입 컵 코리아’ 등 5개 종목에 84대가 참가한다.

주 종목인 ‘슈퍼6000’은 국내의 정상급 선수가 참가하는 아시아 유일 스포카 경주다. 436마력 6천200cc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결승전에서 약 100km를 빠르게 주행하는 차량이 우승하는 방식이다.

슈퍼레이스 2회전은 기존 경기

보다 50km 길어진 150km 경주로 펼쳐지며 슈퍼6000 최초로 ‘피트스톱’을 의무화했다.

‘금고GT’는 양산차를 기반으로 엔진 배기량과 출력 규정에 따라 개조된 차량 ‘투어링카’로 승부를 가린다. 차량의 튜닝성과 선수의 실력에 따라 순위가 결정된다.

모터스포츠의 색다른 볼거리인 피트스톱은 22일 ‘슈퍼6000’ 결승전에서 연된다.

국내에서는 1년에 딱 한 번 볼 수 있다. 이날 오후 3시10분부터 채널 A, 채널A 플러스, tvN 스포츠를 통해 생중계한다. 슈퍼레이스 공식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스포츠, 카카오톡TV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2회전 표는 예스24(YES24)를 통해 온라인 예매가 가능하며 대회 당일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김재정기자